

연기금투자플, 모태펀드와 함께 벤처투자에 최초로 나선다!

- ‘LP 첫걸음 펀드’ 출자사업 공고... 모태펀드 200억원, 연기금투자플(무역보험기금) 200억원으로 총 400억원 출자
- 민·관 여유자금이 혁신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모태펀드가 ‘벤처투자 플랫폼’ 역할을 강화할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8일(목) ‘LP 첫걸음 펀드 출자공고’를 통해 모태펀드와 연기금투자플(무역보험기금)이 공동으로 400억 원을 출자한다고 밝혔다.

‘LP 첫걸음 펀드’는 벤처투자조합 출자 경험이 없는 연기금, 금융사 등 기관 투자자의 벤처투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펀드로, 모태펀드가 우선손실충당, 초과수익이전, 지분매입권 등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투자 분야를 최초 출자자가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이점을 토대로 여유자산의 일부를 연기금투자플을 통해 운용 중인 ‘무역보험기금’이 처음으로 벤처펀드 출자에 나섰다. ‘연기금투자플’ 제도가 연기금 여유자산을 효율적으로 통합 운용하기 위해 2001년에 도입된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벤처투자이다.

‘LP 첫걸음 펀드’는 ‘투자플운영위원회(7.22)’를 통해 연기금투자플의 투자 적성성을 논의한 이후 투자주체인 무역보험기금의 자산운용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8월 18일, ‘LP 첫걸음 모펀드’ 조성을 완료하였다.

무역보험기금이 200억원, 모태펀드가 200억원을 출자하여 모펀드를 조성하였으며, 이번 출자사업을 통해 570억원 규모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펀드는 최초 출자자인 무역보험기금의 투자 수요를 반영하여 ‘세컨더리’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으로, 회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숙 장관은 “벤처펀드는 혁신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여 성장을 지원하고, 성장의 과실을 출자자에게 수익으로 배분하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 수단”이라면서,

“모태펀드는 주로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연평균 8%* 이상, 최근 5년간은 10% 이상의 안정적인 이익을 거두었고, 이는 연기금 등 여유자금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유용한 수단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그간('05~'25.6) 청산 완료된 308개, 8.9조원 규모 모태자펀드의 내부수익률(IRR), 전체 벤처투자조합('87~'24) 중 청산 완료 펀드(1,141개, 17조원) IRR은 8.7% 수준

아울러, “이번 ‘LP 첫걸음 펀드’를 통해 연기금투자금이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포문이 열린 만큼, 보다 많은 민·관 여유자금이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모태펀드가 ‘벤처투자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투자과	책임자	과 장	강신천 (044-204-7710)
		담당자	사무관	박민지 (044-204-7712)
			주무관	진명철 (044-204-7716)
			전문위원	이원찬 (044-204-7618)

